

매체와 코드로서의 사랑, 그리고 사랑 이후의 도시

정성훈*

【요약】

이 논문은 근대화 시대에 사랑의 탄생지였던 도시가 ‘사랑 이후의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림으로써, 그에 따르는 ‘사랑 이후’에 관한 여러 물음들에 대한 답변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랑 혹은 연애가 도대체 어떤 관계를 뜻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필자는 사랑을 ‘친밀성의 코드화’를 이룬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간주하는 니콜라스 루만의 이론에 따라 사랑의 의미론이 변화해온 과정을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근대화 혹은 도시화가 왜 사랑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지를 살펴보고, 근대 사회의 성립과 근대적 자아 형성에서 연애의 기능은 무엇인지 밝힐 것이다. 이 논문의 후반부는 정이현의 소설을 비롯한 최근 한국의 소설, 음악, 영화, 그리고 청춘의 현실에 관한 문헌들을 기초로 사랑 이후의 도시로 변화하는 서울을 진단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진단은 근대 사회 혹은 근대인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주제어】 사랑(戀愛), 친밀성, 열정, 낭만적 사랑, 커뮤니케이션 매체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HK 연구교수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NRF-2007-361-AM0027).

I. 서론

1991년에 김현식은 “누구나 한번쯤은 사랑에 울고 누구나 한번쯤은 사랑에 웃고 그것이 바로 사랑 사랑 사랑이야”라고 노래했고, 그 가사에는 “그런 사랑 한번 ‘못해본’ 사람”은 나오지만 그런 사랑에 관심 없는 사람은 등장하지 않는다. 민주화가 어느 정도 쟁취된 후인 1990년대 초 한국의 대학가에서 연애는 더 이상 동지애의 연장도 아니고 결혼의 준비 절차도 아닌 것, 즉 사랑 그 자체를 위한 사랑이 된다. 연애는 청춘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는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대학가에서 연애를 위해 수업을 듣지 않거나 연애에 빠져 취직 공부를 하지 않는 청춘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청춘에 관한 최근의 여러 문헌들에서 우리는 연애를 사치스러운 일로 간주하고 포기하는 경향, 연애할 때 드는 시간과 돈을 아까워하는 경향, 연애를 하고 섹스를 하더라도 헤어질 때 울고불고 할 만큼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 경향 등등을 확인할 수 있다.¹⁾ 그리고 일본에서 연애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로 쓰이는 ‘초식계(草食系)’가 최근 한국에서도 ‘초식남’, ‘절식남’, ‘견어몰녀’, ‘철벽녀’ 등으로 다양하게 변형되어 널리 쓰이고 있다. 김현식이 노래한 ‘그런 사랑’ 한번 못해 봐도 아무 상관없다는 태도로 살아가는 청춘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식민지 시대의 문학작품에서는 신학문을 공부하는 것, 동경이나 경성으로 가는 것, 연애를 시작하는 것 등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그리고 산업화와 근대화의 시대에는 취직하거나 대학가는 것, 서울로 가는 것, 연애를 시작하는 것 등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1) 엄기호,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푸른숲, 2010), 148-166; 김효진, 「서울 대학가 저소득층 대학생의 연애」, 도시인문학연구소 엮음, 『도시, 성, 사랑』(라움, 2013), 151-194; 최태섭, 『영여사회 남아도는 인생들을 위한 사회학』(웅진지식하우스, 2013), 155-172.

동경, 경성, 서울 등의 도시는 연애를 가능하게 하는 상징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라 서울에서 대학가고 취직하는 청춘에게 서울은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어야 할 도시이기는 하되 사랑의 도시는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연애가 청춘의 필수 코스에서 사라지는 것, 그래서 사랑의 탄생지였던 근대 도시가 사랑 이후의 도시로 바뀌어가는 것은 그저 안타까운 일 혹은 되돌려야 할 일일까? 연애 말고도 인생에 필요한 수많은 중요한 경험들이 있고 사랑 말고도 인생에서 추구해야 할 수많은 숭고한 가치들이 있으므로 모든 청춘이 사랑의 열병에 시달려야 하는 듯이 말하던 시대가 오히려 비정상적이고 심지어 누군가에게는 억압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는 않을까? 더구나 II에서 살펴볼 것처럼 이 연애라는 것은 이 땅에 수입된 지 백년 정도밖에 안 된 것이므로 그것 없는 도시라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길까? 그리고 연애가 어려워졌다면 그것을 대체할 다른 관계 형성을 대안으로 제시하면 되지 않을까?

이 논문은 이런 물음들에 대한 답변을 제공한다기보다는 그 답변을 위한 실마리가 되고자 한다. 왜냐하면 답변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사랑 혹은 연애가 도대체 어떤 관계를 뜻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지금의 상황을 ‘사랑 이후’라고 불러도 좋은가의 문제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근대화 혹은 도시화가 연애와 왜 깊은 연관성을 갖는지를 살펴보고, 근대 사회의 성립과 근대적 자아 형성에서 연애의 기능은 무엇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사랑과 친밀관계의 역사를 사회학적으로 연구한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의 저서 『열정으로서의 사랑(Liebe als Passion)』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 책은 상세한 문헌 연구에 기초하고 있을 뿐 아니라 널리 통용되고 있는 시대별 사랑의 성격을 명명하고 각 변화의 계기들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은 앤서니 기든스, 올리히 벡 등 한국에서 사랑과 관련해 자주 인용되는 저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사랑이 코드화된 매체로 성립하는 과정을 설명한

II와 III은 이 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IV와 V에서 이루어질 사랑과 도시의 연관성에 대한 해명과 사랑 이후의 도시에 대한 진단에서는 루만의 연구를 발판으로 삼아 필자 고유의 연구와 문제의식이 추가될 것이다.

II. 코드화된 매체로서의 사랑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이며 초역사적인 감정 혹은 욕구라고 말한다. 그리고 남녀 간의 연애부터 자식에 대한 애정, 사물에 대한 애착, 심지어 신에 대한 동경까지 모두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지칭한다. 섹슈얼리티와 연관된 연애로 사랑을 한정한다 하더라도, 에로스와 프시케, 로미오와 줄리엣, 이몽룡과 성춘향, 창수와 영자²⁾ 등이 맺었던 관계를 모두 연애로 동일시한다. 물론 연애로서의 사랑과 다른 종류의 사랑들 사이에는 뭔가 상당한 감정의 격차가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근대 이전의 연애와 오늘날의 연애에 사이에도 상당한 특징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쉽게 할 수 있음에도, 사랑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인플레이션되어 있다.

그런데 메이지유신 시대의 일본인들이 영어 love의 번역을 위해 엄청난 고심 끝에 戀도 愛도 情도 色도 아닌 戀愛라는 신조어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³⁾, 그리고 소설 『무정』을 통해 그 연애를 조선에 널리 소개한 이광수의 자세가 너희들이 전혀 모르는 새로운 남녀관계를 가르쳐주겠다는 것이었음을 떠올리면, 게다가 ‘스랑’이라는 단어가 조선 시대에는 그리 자주 쓰이는 단어가 아니었고 쓰일 때도 ‘생각하다’의 의미로 쓰였으며 기독교의 전파 이후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떠올리면⁴⁾, love, 사랑, 연애 등의 인플레이

2) 1975년에 개봉한 한국 영화 「영자의 전성시대」의 두 주인공 이름.

3) 야나부 아키라, 『번역어의 성립』(마음산책, 2011), 97-104.

선은 어떤 사회문화적 변화가 이루어진 결과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오늘날 사랑은 매우 폭넓은 의미로 빈번하게 사용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랑으로 꼽히는 것 혹은 사랑의 대표선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섹슈얼리티와 공생관계에 있는 사랑인 연애이다. 한 친구로부터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고백을 들은 자가 “그 사람이 누군데?”라고 물었을 때, 만약 그 친구가 “하나님”, “어머니”, “나 자신” 등이라고 답한다면 편잔을 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연애가 사랑을 대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애 중에서도 연애로 꼽히는 것은 짝사랑이 아닌 상호적 사랑이며, 그 중에서도 ‘자유연애’, 즉 두 사람이 선택성을 갖는 상황에서 이중의 우연성을 극복함으로써 성립하는 연애이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연애 스토리는 짝사랑의 스토리나 부모님의 소개로 만난 연인들의 스토리가 아닌 상호적 자유연애이다. 이런 사랑은 섹슈얼리티와 공생관계에 있고 미래의 결혼을 예감하게 한다. 그럼에도 사랑은 섹슈얼리티와 동일시될 수 없고 반드시 결혼을 동반하는 것도 아니다.

오늘날 사랑의 대표선수가 된 자유연애의 성립 이전에는 love, Liebe, 사랑 같은 한 단어가 수많은 종류의 관계들과 그로부터 생기는 감정들을 대표하지 않았다. 고대 서양에서는 eros, philia, agape 등 다양한 종류의 사랑을 아우르는 일반적 단어가 없었고, 동양에서도 戀, 色, 情, 愛 등을 아우르는 일반적 단어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근대적 모국어의 성립 과정에서, 그리고 근대적 자유연애의 성립 과정에서, love, 사랑 등이 과거의 다양한 단어들을 포괄하는 일반적 개념으로 성립했다는 추론을 해볼 수 있다.⁵⁾ 이것은 근대

4)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현실문화연구, 2003), 15-16.

5) 필자는 아직 이 추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이 논문의 초고를 발표했던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의 2013년 가을 연합학술대회 「사랑에 관한 담론들」에 참석한 여러 서양고전학 전공자들과 동양학 전공자들은 대체로 이 추론이 타당하다고 조언해주었다.

사회에서 사랑이 ‘열정(Passion)’과 ‘낭만(Romantik)’의 의미론(Semantik)⁶⁾을 통해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커뮤니케이션 매체”⁷⁾가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비개연적인 기대를 가능하게 하는 이 매체들의 특징으로 인해 사랑은 인플레이션을 향한 경향을 가지며 그에 맞선 디플레이션도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뜻한다.⁸⁾ 즉 사랑은 진리, 권력과 법, 소유와 화폐 등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맥락에서 매우 빈번하게 쓰이는 말이지만(인플레이션), 그와 동시에 그 말이 특정한 맥락에서만 쓰이도록 제한되기도(디플레이션) 한다.⁹⁾

루만은 사랑을 감정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다룬다. 그리고 이 매체의 독립분화(Ausdifferenzierung)는 ‘열정’의 의미론이 ‘역설’을 견뎌내면서 이루어진 “친밀성의 코드화(Codierung von Intimität)”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가 사랑을 감정으로 다루지 않는 이유는 우리 누구도 타인이 사랑에서 느끼는 감정이 자신의 감정과 동일한지를 아니면 비슷하기라도 한지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루만에 따르면 18세기에 이미 사랑의 감정은 소통불가능하다는 것이 발견되었고

6) 루만은 의미론을 “(의미의 현행화하는 체험 사건 및 행위 사건 전체와 구별되는) 한 사회가 이용할 수 있는 형식들”, “고도로 일반화되고 상대적으로 상황에 독립적으로 이용 가능한 의미”라고 정의한다. Niklas Luhmann, *Gesellschaftsstruktur und Semantik Band 1*(Suhrkamp, 1980), 19.

7) 루만은 언어라는 기본 매체에서 비롯하는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확산 매체’와 ‘성공 매체’의 두 가지 종류로 나눈다. 확산 매체는 말, 글, 인쇄, 전자 매체 등 커뮤니케이션의 중복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이다. 그에 반해 성공 매체는 커뮤니케이션의 수용이 비개연적인 상황에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매체이다. 현대 사회에서 그러한 성공 매체는 곧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커뮤니케이션 매체’이다.

8) 매체들의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 관해서는 니클라스 루만, 장춘익 역, 『사회의 사회』(새물결, 2012), 454.

9) 이것은 권력이라는 매체의 사례에서도 설명된다. 미셸 푸코의 사용법처럼 권력은 우리 일상의 모든 관계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폭넓게 쓰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폭넓은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정치권력이 ‘여당/야당’으로 명확하게 코드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권력이라는 말은 인플레이션 되어 사용되지만, 맥락에 따라 그 말을 정치권력으로 엄격하게 제한해 쓰고자 하는 디플레이션도 이루어진다.

정직한 사랑과 부정직한 사랑을 나누는 오래된 구별법도 약화되었다.¹⁰⁾ 그리고 자기지시적-자기생산적 체계이론에 따르면, 각각의 심리적 체계(즉, 의식)는 작동 상 닫혀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꿰뚫어볼 수 없는 “블랙박스”이다.¹¹⁾ 블랙박스들 사이에서는 감정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은 가능하지만 감정의 공유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커뮤니케이션에 계속 동기유발되는 의식들이 사랑에 상응하는 어떤 감정들을 품고 있으리라 추정해볼 수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어떤 감정도 직접 공유할 수 없는 두 사람이 어떤 사회제도적 강압 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사랑으로 귀속되는 커뮤니케이션들을 이어나가는 것은 지극히 비개연적인 일이다.

루만은 인쇄의 발전으로 인해 언어 매체의 예/아니오-코드의 양면(즉, ‘예’와 ‘아니오’)이 대칭화 되었을 때 이 대칭성을 다시 비대칭화하기 위해, 즉 ‘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커뮤니케이션 매체들이 독립분화 되었다고 본다. 신분질서와 도덕 코드에 기초한 대면 구어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예-개연성이 높지만, 근대 사회로의 이행과 문자 커뮤니케이션의 증가에 의해 제안된 커뮤니케이션의 수용 가능성은 극히 떨어진다. 즉 글로 쓴 타인의 제안을 무시해버리는 일이 매우 쉬워진 것이다. 특히 매우 힘든 요구에 대한 거절은 당연한 것으로 된다. 이런 상황에서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커뮤니케이션 매체는 “언어의 예/아니오 코드화를 전제하며, 제안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거절이 개연적인 경우에도 수용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기능”¹²⁾을 갖는다. 예를 들어, 권력은 민방위소집 통지서 한 장으로 밤새 술을 마신 30대 아저씨가 아침 7시에 초등학교 운동장에 서있을 수 있게 하며, 화폐는 절대로 하기 싫은 더럽고 힘든 일을 할 수 있게 하며, 사랑은 피곤에 찌든 상태에서도 파트너의 모든 제스처와 말의 뉘앙스에 집중하면서 대화를 이어

10) 니클라스 루만, 정성훈 외 역, 『열정으로서의 사랑』(새물결, 2009), 183, 191.

11) 게오르그 크네어·아민 낫세이, 정성훈 역, 『니클라스 루만으로의 초대』(갈무리, 2008), 41-51.

12) 니클라스 루만, 『사회의 사회』, 375.

갈 수 있게 한다. 이 매체들은 체험 내지 행위로의 귀속 차이와 자아 내지 타아로서의 입장 표시 차이를 통해 네 가지 종류로 분화되어 있다. 그리고 진리, 사랑, 소유/화폐, 권력/법 등의 주요 매체는 신체와 공생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고유한 체계들의 형성을 이루어낸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공생적 상징은 상징일 뿐 매체와 신체의 동일성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화폐를 먹을 수는 없으며 권력은 폭력이 아닌 한에서 권력으로 기능하며 사랑은 섹슈얼리티의 연기를 통해 성립한다.

자아 타아	체험	행위
체험	타아의 체험 → 자아의 체험 진리, 가치	타아의 체험 → 자아의 행위 사랑
행위	타아의 행위 → 자아의 체험 소유/화폐, 예술	타아의 행위 → 자아의 행위 권력/법

<표1> 체험/행위, 자아/타아 구별에 따른 매체 분류¹³⁾

매체	신체에 대한 공생적 상징
진리	신체적으로 가능한 지각, 특히 다른 사람들의 지각들에 대한 지각 가능성
사랑	성적 지시관계, 섹슈얼리티
소유/화폐	긴급한 신체적 필요, 생존
권력/법	물리적 폭력

<표2> 매체와 공생적 상징¹⁴⁾

13) 니클라스 루만, 『사회의 사회』, 397.

14) 필자가 니클라스 루만, 『사회의 사회』, 446-448의 내용을 요약한 표.

루만은 매체(Medien)를 “요소들의 느슨한 결합”으로 규정하면서 “요소들의 엄격한 결합”인 형식(Form)과 구별한다.¹⁵⁾ 그의 체계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체계들의 요소는 커뮤니케이션이므로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별도 달도 따줄게”, “나 잡아봐라”, 그윽한 눈빛, 춤추지 않고 검은 빵을 자르는 일¹⁶⁾ 등 수많은 요소들이 느슨하게 묶여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매체이다. 그런데 이 요소들은 각각 다른 매체들에도 느슨하게 묶여 있을 수 있다. “꽃내음이 나네요”라는 말은 향수 광고의 맥락에도 귀속될 수 있고 “나 잡아봐라”는 말은 체포해달라는 의미 연관 속에 있을 수도 있다.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은 여러 맥락들로 귀속될 수 있으며 사랑이라는 맥락도 그 중 하나이다.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커뮤니케이션 매체들은 구별되는 두 가지 값의 통일된 기호이기 때문에 상징적(symbolisch)이며, 그 두 가지 값 중 하나의 값에 대한 선호를 통해 다시 차이를 산출하기에 악마적(diabolisch)이다.¹⁷⁾ 예를 들어, 법은 합법/불법 구별이라는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불법을 포괄하여 다룰 수 있는 동시에 합법인 커뮤니케이션에만 연결 능력을 부여한다. 이러한 이항 코드화는 매체 기반으로부터 하나의 세계를 산출하는 형식(두 면의 구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매체가 수많은 특수한 상황들에 보편적 유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 예를 들어, 화폐의 지불/비지불 코드는 무엇이건 사거나 사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선택의 형식을 성립시킨다. 그리고 두 개의 값 사이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면서도 두 개의 값 중 하나의 값을 선호하게 만드는 비대칭화는 이러한 매체들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의 일반화와 수용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한다.

15) 니클라스 루만, 『사회의 사회』, 238.

16)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로테의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베르테르의 사랑은 시작된다.

17) 니클라스 루만, 『사회의 사회』, 379.

그런데 코드의 두 값을 비대칭화한다고 해서 모든 양면 형식이 품고 있는 역설, 즉 코드화의 역설을 벗어날 수는 없다. 여기서 역설이란 두 값 중 하나의 값에 대한 할당이 어떤 근본적 토대도 갖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두 값 사이의 끊임없는 진동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과연 사랑했을까?”라는 물음이 던져지는 순간 사랑은 역설에 빠지고 만다. 그리고 세속화된 근대적 조건에서는 진리/비진리 코드를 이용하는 진리 매체 자체가 비진리라고 주장할 가능성, 합법/불법 코드를 이용하는 법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에서 역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정통”¹⁸⁾이다.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커뮤니케이션 매체들은 코드화의 역설로 인한 두 값의 대칭화 혹은 코드 자체의 무력화에 맞서 역설을 은폐하고 미루어놓고 다른 방식으로 펼치고 등등을 함으로써 독립분화 되었다. 루만은 이것을 ‘탈역설화’라고 부른다. 필자가 한국의 다소 세속적인 어법으로 표현하자면, 탈역설화는 ‘역설 돌려막기’이다. 이 매체들을 이용하는 기능체계들은 이차 코드화¹⁹⁾, 프로그램화²⁰⁾, 절차화²¹⁾ 등을 통해 이항 코드화의 역설을 탈역설화한다. 각 매체가 기능체계를 형성하면서 활용하게 된 탈역설화 메커니즘에 관해 루만은 각각의 저서를 통해 탐구하였는데 이 글에서 다룰 수는 없다.²²⁾

18) 니클라스 루만, 『사회의 사회』, 1307.

19) 법은 권력의 이차 코드화로 나온 매체이며, 화폐는 소유의 이차 코드화로 나온 매체이다.

20) 예를 들어, 법은 법률을 통해, 화폐는 가격을 통해 프로그램화된다.

21) 법은 1심, 2심, 3심 등의 절차화를 통해 법의 역설 혹은 우연성을 은폐한다.

22) 『사회의 경제』, 『사회의 학문』, 『사회의 법』, 『사회의 예술』 등이 있다. 법의 역설 전개에 관해서는 정성훈, 「법의 침식과 현대성의 위기」, 『도시 인간 인권』(라운드, 2013), 153-182. 사회의 주요 기능체계들의 탈역설화 혹은 합리화 메커니즘에 관해서는 정성훈, 「사회의 분화된 합리성과 개인의 유일무이한 비합리성」, 『도시 인간 인권』(라운드, 2013), 49-82.

Ⅲ. 열정에서 낭만으로, 친밀성의 코드화

그런데 사랑은 다른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커뮤니케이션 매체들과 달리 상호작용들을 형성할 수는 있으나 사회의 기능체계를 형성할 수 없다. 그리고 조직들에 의존할 수도 없다.²³⁾ 그래서 사랑은 코드화의 역설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구축할 수 없다. 서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심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없고, 사랑의 입증을 1심, 2심, 3심처럼 절차화할 수도 없다. 그래서 사랑은 역설을 견뎌낼 수 있는 의미론을 통해 탈역설화해야 하며, 이러한 의미론은 사회의 기능체계인 대중매체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 근대 초기에 그 매체는 주로 소설이었고, 루만의 연구도 주로 소설을 통해 이루어진다.

루만은 사랑이 역설을 견뎌낼 수 있도록 코드화한 의미론을 17세기 후반에 시작된 ‘열정’의 의미론이라고 본다. 열정적 사랑 이전에 지배적이었던 사랑의 의미론은 중세 말 궁정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기사도 소설의 ‘이상적 사랑’이었다. 이상적 사랑은 주로 귀족 부인인 사랑받는 자의 탁월한 속성으로 인해 성립하며 이 숭고한 사랑은 사랑 밖에서 이룩한 공적에 의해 쟁취하거나 아니면 실패해서 죽거나 할 뿐이지 사랑 그 자체가 쓰라린 수난은 아니었다. 17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여성들이 청혼을 거절할 권리를 갖게 되면서 사랑은 더 이상 이상적인 것에 머물지 않게 된다. 공적을 세운 탁월한 남성이 구애를 함에도, 그리고 사랑의 방해물인 남편이 이미 죽었음에도, 귀족부인이 청혼을

23) 루만은 사회적 체계들을 인격들의 참석으로 성립되는 ‘상호작용들’, 구성원 자격을 규제하며 결정에 의해 재생산되는 ‘조직들’, 그리고 포괄적인 사회적 체계인 ‘사회’와 그 사회의 특정 문제를 떠맡는 ‘기능체계들’ 등으로 분류한다. 연애로서의 사랑은 집단적일 수 없는 둘만의 관계이므로 상호작용보다 규모가 큰 조직이나 기능체계와 같은 사회적 체계들을 형성할 수 없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조직의 결정에 따른 연애, 혹은 기능적 필요에 따른 연애와 같은 말은 성립하기 어렵다. 상호작용과 사회, 조직과 사회의 관계에 관해서는 니클라스 루만, 『사회의 사회』, 928-966.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²⁴⁾ 이제 사랑의 초점은 이상적인 대상으로부터 사랑하는 자의 상상으로 옮겨간다. “상상 속에서 타인의 자유를 이용”²⁵⁾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상상이며, 변덕스러운 대상을 향한 사랑은 수난이다. 그래서 이제 대상의 속성이 아니라 사랑하기 그 자체가 중요해진다.

중세에 수난을 뜻했고 어쩔 수 없는 수동성을 함의했던 *passio*는 17세기 후반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함의까지 동시에 갖게 되면서 새로운 사랑하기의 의미론으로 자리 잡는다. 젊은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빠질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빠져야 하는 것, 자발적으로 뛰어드는 수난이자 쓰라린 기쁨이 열정이다. 그 자체로 역설적인 성격을 갖는 열정은 “불안정성의 정당화와 심리적 세련화”²⁶⁾를 이룩함으로써 사랑의 역설을 견뎌낼 수 있게 만든다. 즉 비대칭적인 코드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대중매체에서 사용되는 예를 들어 보자면, 구애의 거절을 “아직’ 사랑하지 않는다”로 해석하고 이별의 통보를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열정의 의미론을 통해 좌절과 수난을 계속 다시 사랑으로 귀속시키려 하는 서사화의 길²⁷⁾이 열린다.

또한 열정의 의미론은 사랑을 “합리적 통제 영역의 외부”²⁸⁾로, “합리성이 라는 가상으로의 도피”²⁹⁾가 불가능한 영역으로 만든다. 이것은 사랑을 다른

24) 17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연애소설인 『클레브 공작부인』에서 공작부인은 자신에게 열정을 품은 느무르공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지만 이미 결혼해 남편이 있기 때문에 괴로워한다. 그런데 둘 사이를 눈치 챈 남편이 질투심으로 병들어 죽은 후에도 공작부인은 느무르공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파에트 부인, 류재하 역, 『클레브 공작부인』(문학동네, 2011).

25) 니클라스 루만, 『열정으로서의 사랑』, 84.

26) 니클라스 루만, 『열정으로서의 사랑』, 94.

27) 과도함으로 인해 오래 지속되지 못했기 때문에 열정적 사랑이 사랑의 서사화를 실현했다고 볼 수는 없다. 서사화의 완성은 낭만적 사랑에서 이루어진다.

28) 니클라스 루만, 『열정으로서의 사랑』, 99.

29) 니클라스 루만, 『열정으로서의 사랑』, 90.

매체들로부터 뚜렷이 차별화되는 매체로 분화시켜주었으며 계몽의 시대와 양립 가능하게 해주었다. 열정에 빠진 두 사람의 ‘고립’을 통해 그들 바깥 세계의 합리주의로부터 가해지는 공격을 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랑 대 이성’이라는 대립이 각 영토 고유의 관할권으로 해소됨으로써 낭만적 사랑에서 완성되는 사랑의 자기지시(Selbstreferenz)를 향한 길이 열리는 것이다. 즉 아름답기 때문에 혹은 참이기 때문에 혹은 성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혹은 ‘사랑을 위한 사랑’이라는 자기지시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열정의 의미론은 사랑을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코드화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긴 했지만 그것이 가진 ‘과도함’으로 인해 사랑을 대중화시키지 못하며 친밀성의 코드화로 나아가지 못한다. 예를 들어 자살에 이르는 베르테르의 과도함은 극소수의 사람들만 따라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익명적·비인격적 관계들이 양적으로 증가하는 근대 사회의 개인들이 추구하게 되는 내밀한 인격적 관계들을 대표하기에 열정은 너무 단기적이다.

루만은 사회의 기능적 분화와 함께 개별 인격이 사회의 어느 한 하위체계에 정착할 수 없게 되며, 그로 인해 체계/환경 차이, 즉 개인과 사회의 차이가 뚜렷해진다고 말한다. 그래서 개인은 출신 가족이나 기능적 역할들에서는 자기정체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가까운 세계와 먼 세계의 차이를, 즉 ‘개인적으로만 유효한 경험, 평가, 반응 방식’과 ‘익명적으로 구성되고 모두에게 유효한 세계’의 차이”³⁰⁾를 사용하게 된다고 말한다. 전자의 세계에서 성립하는 관계, “타인의 자아 중심적 세계 설계를 확증”해주는 파트너와의 관계이며, “삶의 모든 상황에서 파트너를 계속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준거의 보편성”을 갖는 관계가 ‘친밀 관계(Intimbeziehung)’이다.³¹⁾

30) 니클라스 루만, 『열정으로서의 사랑』, 33.

31) 니클라스 루만, 『열정으로서의 사랑』, 39.

사회구조의 변동과 함께 18세기 말에 강화된 이러한 친밀 관계의 형식으로는 사랑과 우정이 있었다. 이때 친밀 관계를 대표했던 것은 과도한 열정적 사랑보다는 오히려 온건한 우정이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 이후 조혼이 줄어들면서,³²⁾ 독일 낭만주의에 의해 섹슈얼리티가 사랑에 포섭되면서, 그리고 영국에서 시작된 동반자적 부부관계라는 관념이 확산되면서, 사랑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과도한 열정을 억제하고 결혼으로 완성되는 서사로 바뀌어간다. “각자의 고유한 세계 속에서 개인으로 존재”하는 개인들의 사랑하기는 “자기의식적인 자아 형성 기회”로 간주되며,³³⁾ ‘사랑을 위한 사랑’은 결혼을 통해 영원성을 약속하게 된다. ‘사랑-섹슈얼리티-결혼’이 하나로 묶이는 낭만적 사랑에 의해 친밀 관계의 중심에는 우정이 아닌 사랑이 서게 된다. 그리고 환심사기용 친절도 과도함의 실천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모든 개성이 존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사람이 오직 한 사람과만 진정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설파하기 때문에, 낭만적 사랑의 의미론은 ‘포함(Inklusion)’의 기능도 갖는다. 상층계급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었던 연애는 사회가 기능적 분화로 이행함에 따라 “모든 기능 영역에 모든 인구를 더 긴밀하게, 가능한 한 더 널리 포함하도록 강제”³⁴⁾되는데, 여기에 들어맞는 의미론이 낭만적 사랑이다. 이제 누구나 사랑할 수 있고 결혼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 열정적 사랑과 비교할 때 어찌 보면 다소 보수화된 희망을 품을 수 있다. 이렇게 사랑은 대중화됨으로써 친밀성을 코드화하는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된다.

32) 이것은 연애의 주인공이 미혼자일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상적 사랑과 열정적 사랑의 시대에 소설의 주인공, 특히 여주인공은 대부분 기혼자였다.

33) 니클라스 루만, 『열정으로서의 사랑』, 204.

34) 니클라스 루만, 『열정으로서의 사랑』, 75.

IV. 왜 사랑은 낯선 곳에서 이루어졌으며, 왜 한국에서는 도시에서 이루어졌는가?

열정의 의미론이 순화되어 낭만의 의미론으로 넘어가던 시기, 즉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까지 유럽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연애소설의 주요한 모티프는 ‘여행’ 혹은 ‘방랑’이었다.³⁵⁾ 베르테르, 울리우스³⁶⁾, 오스왈드³⁷⁾ 등은 고향을 떠나 낯선 곳을 떠돌다가 사랑에 빠진다. 그들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는 곳은 낯선 자들로 가득한 무도회장, 군중이 운집한 대도시 등이다. 그들은 출신가족, 공동체 등과는 거리가 먼 익명적 관계들의 숲에서 자신을 파괴시킬 혹은 자신을 완성시킬 파트너를 ‘우연히’ 만나게 된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에 가족은 거의 개입하지 못한다.

이 시대에 연애소설의 모티프가 여행이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직 도시화의 진행이 더디었던 시대에 고향에서는 청춘남녀의 우연한 만남과 자유로운 선택의 가능성이 적었다. 익명의 숲에서 친밀 관계의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선 고향을 떠나야 했다. 따라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자와의 우연한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그래서 “사랑한다/아직 사랑하지 않는다” 혹은 “사랑한다/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와 같은 양면의 교체가 가능한 비대칭적 코드화가 가능하려면, 여행 혹은 방랑이라는 상황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에 비해 식민지 조선에서 연애의 모티프는 ‘공부’와 ‘유학’이었다. 조강지처를 버리고 연애를 감행한 남성들은 동경 유학생이었고, 그들의 파트너는 여학생 혹은 지식인 여성이었다. 이광수-허영숙, 최승구-나혜석, 홍난파-윤심

35) 독일 낭만주의 연구서에는 낭만주의 문학의 모티브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소설의 주인공들이 먼 곳으로 떠났다가 다시 귀향하는 것”, “몽유병적인 확신으로 소설 주인공은 무한하게 표상된 세계를 떠돌아다닌다” - 최문규, 『독일 낭만주의』(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15-16.

36) 독일 낭만주의의 선구자 프리드리히 슐레겔의 소설 『루친데』의 남자 주인공.

37) 낭만주의를 프랑스에 소개한 마담 드 스탈의 소설 『코린나』의 남자 주인공.

덕·김우진 등 연애의 선구자들이 파트너를 만난 장소는 동경이었다. 이광수의 『무정』, 나도향의 『환희』 등 연애를 다룬 소설의 무대는 경성이었고 동경 유학생이 등장한다. 강제로 결혼시키는 가족과 어떤 익명성도 용납하지 않는 농촌공동체로부터 벗어난 유학생들은 가까운 세계와 먼 세계의 차이를 체험할 수밖에 없는 도시의 조건에서 사랑에 빠진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연애는 계몽과 불가분한 짝을 이루는 근대화 혹은 서구화의 상징이었기에 공부야말로 연애의 필수 조건이다.³⁸⁾ 그리고 식민지 시대에 가까운 세계와 먼 세계의 차이가 뚜렷했던 도시, 새로운 학문을 성년이 되어서도 공부할 수 있었던 도시는 경성과 동경이었다. 그래서 이 두 도시가 사랑의 도시로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랑의 불꽃』을 비롯한 노자영의 연애서간집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절정에 이르렀던 ‘연애의 시대’³⁹⁾는 1920년대 후반 정치적 관심과 이념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쇠퇴기를 맞는다. 1930년대부터 한국전쟁 이후까지 이상적 사랑, 열정적 사랑, 낭만적 사랑 등 근대적 사랑을 이루고 있는 여러 성분들이 앞서거나 뒤 서거나 하면서 수많은 연애소설들이 나왔지만 1970년대에 낭만적 청년문화가 부상하기 전까지 한국에서 코드화된 사랑의 보편화는 별로 진전되지 않았다. 성적 방종에 빠지건 극단적 정신성을 추구하건 식민지 시대 연애소설의 주인공들은 대체로 엘리트층이었으며, 한국전쟁 직후에는 여기에 상류층 부인, 미망인 등이 추가되었다.⁴⁰⁾

38) 식민지 시대 근대적 의식 형성에서 ‘공부’와 ‘연애’라는 두 축의 환영(幻影)에 관해서는 정혜영, 『환영의 근대문학』(소명출판, 2006).

39) 권보드래는 1920년대 초반을 ‘연애의 시대’로 규정한다. 그리고 1923년 6월 강명화 자살 사건 이후 연애라는 현상이 쇠퇴하였으며, 1920년대 중반 관동대지진 이후 ‘사랑’ 대신 ‘힘’이 유행하고, 그에 이어 사랑보다 이념을 우선시하는 ‘붉은 사랑’이 부각되었다고 분석한다.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현실문화연구, 2003), 195-202.

40) 이것은 192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한국 대중연애서사를 총망라한 진선영의 연구 결과를 보면서 그 의도와는 다소 무관하게 필자가 내린 판단이다. 진선영이 소개한 당대의 유행 소설의 주인공들은 1970년대 이전까지는 대체로 직업상 혹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소설과 영화에서 연애의 주인공들은 별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하층민으로 내려가지 시작한다. 주인공이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엘리트의 냄새를 풍기지 않는다. 특히 최인호, 조선작 등 전후세대 작가들의 신문연재소설이 영화화되고 통기타 청년문화와 결합했던 1970년대에 이러한 경향은 뚜렷해진다. 19세기 서양에서 탁월하지 않은 자들 혹은 아름답지 않은 자들이 연애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듯이, 한국의 소설과 영화에서도 인구의 다수를 연애로 포함시키는 과정이 진행된 것이다. 물론 그 연애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기 때문에 이 포함은 꿈에 머물고 만다. 한국의 민주화가 그러했듯이 말이다. 『맨발의 청춘』(1964), 『별들의 고향』(1974), 『영자의 전성시대』(1975), 『어둠의 자식들』(1981) 등의 주인공들은 고향을 떠나 상경한 자들이거나 고향을 알 수 없는 자들이며, 낯선 서울에서 우연히 만난 파트너에게 몰입했다가 비극적인 결말에 이른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지점은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겪은 ‘상경(上京)’이 친밀 관계에 대한 욕구를 증폭시켰다는 것이다.

사랑과 도시는 친화력을 갖는다. 근대 도시를 연구한 여러 사회학자들은 도시를 “낯선 자들이 서로 만나는 장소”, “친숙한 것과 친숙하지 않은 것 사이의, 잘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 사이의, 고유한 것과 낯선 것 사이의 이행을 조직하는 것”⁴¹⁾ 등으로 규정했다. 도시는 가까운 세계와 먼 세계의 차이가 첨예한 장소인 것이며, 먼 세계로부터 온 타인이 가까운 세계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장소인 것이다. 그래서 근대화 시대의 도시는 가족과 친족공동체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파트너 선택이 가능한 곳이며, 역할에 따른 익명적 관계들의 숲에서 가까운 세계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곳이다.

상경의 시대는 연애의 욕구를 증가시킨 시대였고, 서울은 수많은 연애소설과 영화의 배경장소였다. 그런데 지금도 도시는 사랑의 장소일까? 서울은

은 계층상 특별한 인물들이다. 진선영, 『한국대중연애서사의 이데올로기와 미학』(소명출판, 2013), 293-322 참조.

41) Markus Schroer, *Räume, Orte, Grenzen*(Suhrkamp, 2006), 244.

달콤한 연애의 도시일까?

V. 사랑 이후의 도시

198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소설, 영화, 대중음악 등에서 사랑은 어떤 외적 조건 혹은 상황으로 인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았다. 『맨발의 청춘』의 서두수(신성일 분)는 계층 차이로 인해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 『영자의 전성시대』의 창수(송재호 분)가 군대에 간 사이 영자(염복순 분)는 주인집 아들에게 겁탈당하며, 때밀이와 매춘부로 다시 만난 둘의 연애는 가난 때문에 좌절된다. 『어둠의 자식들』의 카수(나영희 분)는 돈과 폭력 때문에 남편과 아이를 잃는다. 트윈폴리오의 노래 『웨딩케이크』의 화자는 “사랑치 않는 사람”과 결혼해야 하며, 양희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서 “너의 침묵”은 시대적 억압의 반영으로 들린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연애 양상은 점차 바뀐다. 유재하와 김광석의 노래에서 이제 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지만 둘 사이에 생긴 문제로 잘 풀리지 않거나 헤어지는 것으로 묘사된다. 두 가수 자신들의 사랑과 이별과 죽음도 그러했다. 그리고 배신한 여자가 배신당한 남자를 향해 “행복해야 해”라고 말하는 이소라의 노래, 연애를 한번쯤 해봐야 할 놀이 정도로 생각하는 015B의 노래들에서 사랑은 쉽게 시도되고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공지영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정이현의 『낭만적 사랑과 사회』 등 한국 여성작가들의 소설에서는 낭만적 사랑의 허구성에 대한 폭로가 이어진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 『연애』, 『바람난 가족』 등 2000년대의 한국 영화에서 섹스는 쉽게 이루어지지만 연애와 결혼은 미친 짓이거나 극히 계산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 된다.

TV 드라마로도 만들어진 정이현의 소설 『달콤한 나의 도시』는 오늘날 서울에서 달콤한 사랑이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섹슈얼리티에 개방적이며

극히 개인주의적인 주인공 오은수는 각기 다른 장점과 단점을 가진 여러 남성들과 사귀지만 누구와도 친밀 관계를 맺지 못한다. 오은수의 어머니는 무뚝뚝한 가부장인 아버지를 두고 가출하지만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지도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온 후 별거한다. 소설의 후반부에서 오은수는 비교적 직장도 좋고 매너도 좋지만 자신의 내면을 잘 드러내지 않는 남자 김영수를 만나 결혼 날짜까지 잡는다. 하지만 김영수는 오랫동안 남의 이름으로 살아온 유령 같은 존재임이 드러난다. 여러 남자들과의 사귄에서 자기의 고유한 세계를 확인받거나 타인의 고유한 세계를 확인해준 적 없는 오은수는 가짜 김영수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에서 “솔직히 나도 가끔씩 내가 ‘오은수’를 흉내내며 사는 건 아닐까 궁금해요”⁴²⁾라고 고백한다. 그리고 소설의 마지막 즈음에서 “내 곁에 다가왔다 떠난 이들이 나에게서 무엇을 읽고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아는 건 단 한 가지. 그들이 기억하고 있을 그 어떤 나의 얼굴도 오롯한 오은수는 아니라는 것. 완전한 오은수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⁴³⁾고 말한다.

죽도록 사랑하지 않는 사랑, 낭만적 합일의 환상이 없는 사랑은 더 이상 유일무이한 자기 세계의 확인도 아니고 성장하는 자아의 서사도 아니며 먼 세계와 뚜렷이 구별되는 가까운 세계의 제공자도 아니다. 오히려 이 도시에서의 만남은 공유 혹은 상호침투의 불가능성에 대한 냉철한 인식, 그리고 자기도 알 수 없는 자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서울의 맛이다”이다. ‘달콤한 나의 도시’는 역설적이게도 ‘사랑 이후의 도시’인 것이다.

도시는 ‘만남’의 장소만이 아니며, 만남이 곧 친숙함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도시는 만남도 가능하게 하지만 자기만의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도 보장한다. 또한 도시는 만남 이후의 ‘퇴각’, 서로 더 가까워지지 않게

42) 정이현, 『달콤한 나의 도시』(문학과학지성사, 2006), 434.

43) 정이현, 『달콤한 나의 도시』, 440.

하는 깔끔한 헤어집도 보장한다. 그래서 도시사회학은 오늘날의 도시를 “만남 인가 퇴각인가”⁴⁴⁾라는 주제로 다루면서 만남을 강조하기도 하고 퇴각을 강조하기도 한다. 아마도 이러한 긴장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도시는 우리가 잘 모르는 자들과 이야기할 수 있게 하지만, 또한 우리를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있게도 하는 사회적 장소”⁴⁵⁾라는 디르크 백커의 문구일 것이다. 개인주의가 본격화된 도시, 사랑 이후의 도시인 오늘날의 서울에서 우리는 만남보다는 머물러 있음을, 그리고 만남 이후의 재빠른 퇴각을 목도하고 있다.

루만은 16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열정으로서의 사랑』에서 14장까지는 낭만적 사랑의 의미론이 성립하는 과정을 다루고, 결론 바로 앞의 15장에서 간략하게 자신의 당대인 20세기 후반에 사랑이 처한 상황을 다룬다. 여기서 루만은 오늘날 페미니스트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비판하듯이 낭만적 사랑의 의미론이 결국 남성 중심적이라는 점, 결혼을 통해 낭만적 사랑은 유지될 수 없고 오히려 사랑에게 결혼이란 잘못된 프로그램일 수도 있다는 점, 섹스를 사랑 및 결혼과 연결시키려는 도덕이 지속될 수 없다는 점 등등을 지적한다.

그런데 루만은 낭만적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는 대안적 사랑의 가능성을 탐색하지 않는다. 유럽과 미국의 상황을 주로 고려했을 20세기 후반 사랑의 양상에 관한 그의 진단은 다소 비관적이다. 그는 사랑의 코드 형식이 “‘이상’에서 ‘역설’을 거쳐 ‘문제’로 전환”되었다고 말한다. 여기서 ‘문제’란 “친밀 관계를 위한 파트너를 찾아 그를 묶어둘 수 있는가”이다.⁴⁶⁾ 어찌 보면 사소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제는 낭만적 사랑을 성립시켰던 개인주의화가 철저하게 진행된 조건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정이현의 소설들이 보여주듯이, 각자의 고유한 세계를 끊임없이 서로 돌아가며 확인해줄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섹스 파트너를 찾는 일이나 결혼 상대를

44) Markus Schroer, *Räume, Orte, Grenzen*(Suhrkamp, 2006), 244-251.

45) Dirk Baecker, *Wozu Soziologie?*(Kulturverlag Kadmos, 2004), 207.

46) 니클라스 루만, 『열정으로서의 사랑』, 229.

구하는 일은 오히려 쉬운 일일 수 있지만 말이다. 그리고 서로의 삶을 끊임없이 이해하려고 해야 하는 ‘상호침투’의 노력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한때에 그칠 뿐이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소설과 영화는 결혼 이후를 보여줌으로써 낭만적 사랑의 허구성을 폭로한다. 즉 파트너를 묶어두는 일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런데 오늘날 사랑을 문제로 전환시킨 원인, 그리고 연애가 시작되었던 도시를 사랑 이후의 도시로 만든 원인이 개인주의화만은 아니다. 사회로부터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랑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 청년의 상황이 큰 몫을 한다. 대학 강사 엄기호가 자기 수업을 들은 학생들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엮은 책 『이것은 왜 청년이 아니란 말인가』에서 대학생들은 연애에 드는 비용, 시간, 공간 등으로 인해 연애를 포기하거나 “임시적인 사랑”⁴⁷⁾만 한다.

루만에 따르면 기능적 분화의 결과로 생겨났지만 기능적 분화를 침식하는 차이인 포함과 배제의 차이⁴⁸⁾는 그가 당시에 주목했던 브라질과 달리 아직 한국에서는 거대한 빈민촌을 만들어내고 있진 않다. 하지만 사회의 기능 맥락별 포함의 조건이 현격히 높아진 상황에서 준포함 상태의 청년은 각 기능체계들로의 포함들에 대해 매우 선택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저소득층 대학생의 연애를 다룬 한 논문에서 인터뷰에 응한 일부 대학생들은 “데이트 할 시간이 없는 애인”을 원한다고 말한다.⁴⁹⁾ 남녀유별, 남존여비, 혼전순결 등 앞 세대의 연애를 가로막았던 여러 가지 도덕적·문화적 장벽들은 이미 제거되었지만, 오늘날의 가난한 청년에게 연애는 취업 공부에 바쳐야 할 시간과 데이트 비용을 들일 만큼 가치 있는 일이 아니다. 누구도 자유연애를

47) 엄기호, 『이것은 왜 청년이 아니란 말인가』(푸른숲, 2010), 163.

48) 포함과 배제의 차이에 관해서는 정성훈, 「루만의 사회이론에서 포함과 배제의 차이」, 『도시 인간 인권』(라움, 2013), 83-128.

49) 김효진, 「서울 대학가 저소득층 대학생의 연애」, 도시인문학연구소 엮음, 『도시, 성, 사랑』(라움, 2013), 181-185.

가로막지 않지만 자유는 다른 포함, 무엇보다도 경제로의 포함을 위해 먼저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VI. 결론

우리가 어느 시대에나 변함없이 일어났던 여남 간의, 혹은 동성 간의 깊은 애착이나 섹스 혹은 결혼 등을 모두 사랑이라고 부른다면, ‘사랑 이후’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랑을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그리고 친밀성을 코드화한 매체로 간주한다면, 사랑이 근대 사회의 성립 및 근대적 인격의 탄생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랑 이후’가 바로 그러한 근대 사회 및 근대인의 종말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표현임을 알 수 있다.

근대 사회는 냉정한 화폐의 세계(경제), 엄밀한 진리의 세계(과학), 엄격한 규범의 세계(법), 무자비한 우열의 세계(정치) 등으로 분화되어 있으면서도 사랑 덕택에 그 분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동기유발에 성공해왔다. 분화된 합리적 세계 혹은 먼 세계에서의 힘겨움을 유일무이한 비합리적 세계 혹은 가까운 세계에서의 친밀함으로 상쇄해왔기 때문이다.⁵⁰⁾ 물론 사랑 말고도 예술, 종교 등도 이런 상쇄 기능을 해왔다고 볼 수 있지만 사랑만큼 대중적이고 강력하지는 못하다.

근대인은 어느 시대의 사람들보다 강한 개인주의자이지만 그는 근대 사회의 어떤 다른 영역에서도 자기동일성(self-identity)을 확인할 수 없다. 그가 태어난 가족과도, 그가 나온 학교와도, 그가 다니는 직장과도, 그가 지지하는 정당과도 동일시될 수 없는 개인의 유일무이한 동일성에 대한

50) 이에 관해서는 정성훈, 「사회의 분화된 합리성과 개인의 유일무이한 비합리성」, 『도시 인간 인권』(라움, 2013), 49-82.

추구는 대개 사랑과 함께 혹은 사랑의 좌절과 함께 시작된다. 그를 낳은 부모도 그를 가르친 선생님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 그 성공은 오로지 둘만의 관계에서만 가능하고 그 실패는 오롯이 자기 몫으로 되고 마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서양 근대 연애소설의 시작이 서간체였던 것, 사랑은 고독한 편지쓰기와 일기쓰기를 통해 시작되었던 것은 사랑이 근대인의 자기동일성 형성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오늘날 우리는 전화 한 통, 문자메시지 한 통으로만 고백하고 그 답 메시지에 좌절한 후 삼포족 혹은 초식계가 되는 청춘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먼 세계의 관계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내밀한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는 청춘들, 그래서 둘만의 역사가 없고 사랑을 매개로 한 자기서사가 없는 관계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진단하는 경향, 즉 ‘사랑 이후의 도시’로서의 변화는 그저 도시적 삶에서 낭만적 요소 하나가 사라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 사회 혹은 근대인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필자는 아직 사랑 이후의 도시라는 이 변화를 긍정적으로 볼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볼지, 혹은 낭만적 사랑의 대안은 없는지 등등의 문제에 관해 명확한 답변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전자의 문제는 근대성 전체에 관한 큰 물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후자의 문제는 적어도 선불리 제시된 기존의 대안들⁵¹⁾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말해야겠다는 책임감 때문에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사랑에 대한 뚜렷한 개념화를 통한 시대 진단에 머물고자 했다.

51) 앤서니 기든스의 “합류적 사랑”, 크리스티안 숄트의 “전략적 낭만” 등등.

참고문헌

Baecker, Dirk(2004), *Wozu Soziologie?*, Kulturverlag Kadmos.

Luhmann, Niklas(1980), *Gesellschaftsstruktur und Semantik Band 1*, Suhrkamp.

Schroer, Markus(2006), *Räume, Orte, Grenzen: Auf dem Weg zu einer Soziologie des Raums*, Suhrkamp.

게오르그 크네어·아민 닛세이, 『니클라스 루만으로의 초대』, 정성훈 역(2008), 갈무리.

권보드래(2003),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김효진 외(2013), 『도시, 성, 사랑』, 라움.

니클라스 루만, 『열정으로서의 사랑』, 정성훈 외 역(2009), 새물결.

니클라스 루만, 『사회의 사회』, 장춘익 역(2012), 새물결.

라파예트 부인, 『클레브 공작부인』, 류재화 역(2011), 문학동네.

엄기호(2010),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 푸른숲.

정성훈(2013), 『도시 인간 인권』, 라움.

정이현(2006), 『달콤한 나의 도시』, 문학과지성사.

정혜영(2006), 『환영의 근대문학』, 소명출판.

진선영(2013), 『한국대중연애서사의 이데올로기와 미학』, 소명출판.

최문규(2005), 『독일 낭만주의』, 연세대학교 출판부.

최태섭(2013), 『잉여사회 남아도는 인생들을 위한 사회학』, 웅진지식하우스.

야나부 아키라(2011), 『번역어의 성립』, 마음산책.

Abstract

In this paper, I diagnose a change of urban life. It is the turn from the city of love to the post-love city. Through the age of modernization in Korea, the place which lovers met had been city. Nowadays radical individualism and the risk of exclusion are bringing about a turn to the post-love city.

This diagnosis premises the concept of love. I regard love as a symbolic generalized communication media. This media has been coded for intimate relations. By Niklas Luhmann, the passionate love causes the coding of love and the romantic love causes the distinct differentiation of this symbolic media. Love as a coded media has formed the self-narrative of individual.

In the Korean popular literature, music and cinema after 1990's, young women and young men do not pursuit loving. Love is being pushed out for the individual life or the social inclusion. This change implies the crisis of modernity.

【Keywords】 love, intimacy, passion, romantic love, communication media

논문 투고일: 2014. 3. 10

심사 완료일: 2014. 4. 08

게재 확정일: 2014. 4. 08